



박소현의 섹.시.토.크

연애하는 1년 동안 달걀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탓인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밤이면 밤마다 K에게 정신없이 덤벼들었다. 신혼 초에는 다 그런 법이라 하니, 몸은 좀 힘들었지만 큰 불만은 없었다. 아니 이런 게 사랑받는 느낌이구나 싶어 기분도 적잖이 좋았다.

두 사람 모두 섹스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한동안은 초보답게 탐구하는 정신으로 잠자리에 입했다. 처음에는 제대로 하기만 해도 다행이고, 끝까지 가가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부부의 섹스 라이프에도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K와의 섹스가 안정권에 접어들자 결혼 전에 열심히 본 야동에 등장하던 체위들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야동을 감상할 때 마다 '나도 꼭 해봐야지.'하고 꿈꿔왔던 것들을 드디어 실현하게 된 것이다. 남편 입장에서야 나를 감격시킨 일일지 모르나 K의 입장은 틀렸다. 그녀는 이런 건 서로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의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 걸 시도해 가면서 익숙해지는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요구는 많아지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아내를 향한 불만과 불평도 늘

어났다. 하다못해 콘돔 사용에 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았다. 두 사람은 결혼하면서 얻은 매출급을 갖기 위해 아이는 2년 뒤에 갖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그래서 콘돔을 써야했는데, 남편은 콘돔을 끼면 느낌이 제대로 살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다.

“그냥 네가 피임약 먹으면 안돼?”



“피임약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다잖아.”
“콘돔 끼면 꼭장갑 끼고 하는 기분이란 말야.”
이런 대화가 일주일에 한번은 오가야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섹스가 끝나고, 침대에 엎드려 몸을 일으켜 샤워를 하러가면서 남편이 K

를 향해, 흘러듯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조이는 느낌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들 말 들어보면 삽입하면 느낌이 확 온다는데, 나는 그런 걸 못 느끼겠거든. 아, 기분 나쁘게 들진 마. 그냥 네가 명기나 뭐 그런 건 아닌가 보자, 그런 말이야.”

기다렸다는 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내가 조이는 느낌이 없다면? 그게 웬지 알아? 내가 흥분을 못해서야. 여자는 오르가슴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질 허부가 수축되게끔 되어 있어. 네가 말하는 조이는 상태가 되는 거라구. 그리고, 나는 뭐 네 사이즈가 만족스러우지 않아? 내 친구들도 그러던데 남편이 삽입만 하면 느낌이 확 온대. 그런데 나는 네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잘 모르겠거든? 내가 명기가 아니라고? 너도 변강쇠 아니거든?”

남편의 얼굴이 붉어질까봐 하는 것을 보면서도 K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는 나를 야동에 나오는 여자처럼 대하지마. 네 친구들한테 주위 들은 이야기를 나한테 대입시키지도 마. 그동안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나를 대하지 마. 알았어?”

K의 서술에 놀랐는지, 아니면 단단히 빠졌는지, 남편은 말없이 침대에 눕더니 몸을 반대로 확고 돌리버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K는 불을 끄고 누우며 한마디 덧붙였다.
“아 참, 기분 나쁘게 들지는 마.”
(<연애칼럼니스트>)

내 남편, 뭘 배우고 왔길래

리빙 센스

안경쓴 사람들의 눈 관리

▲안경테 들어지지 않게
안경이 틀어져 렌즈와 눈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된다. 안경테가 들어지지 않도록 케이스에 보관을 하고 테가 틀어졌을 때는 안경점을 찾아 A/S를 받는다.

▲정기적인 시력 검사
안경을 써두고 해서 그 시력이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기라면 최소 6개월에 한번, 성인은 1년에 한번쯤은 시력 검사를 받는다.

▲필수영양소 섭취
눈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B, B6, B12, C, E는 당근, 호박, 토마토, 부추, 시금치, 콩, 파슬리, 송이버섯, 닭고기, 달걀, 키위, 감귤 등의 과일, 고등어, 참어, 뱀장어, 다랑어, 참치 등의 생선, 돼지고기, 동물성 간, 달걀노른자 등에 많이 들어있다. 마나나와 꿀에 들어있는 칼륨, 옥류, 생선, 치즈 등에 많은 단백질과 칼슘도 좋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3일(음 4월 19일 癸亥)

36년생 고생은 있으나 좋은 날이 됨. 48년생 혼자서 노는 격이니 이웃과 정을 나누라. 60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잡라. 72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84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면 주변의 도움과 재물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11, 41

37년생 초행길은 불편하니 살피서 행동하라. 49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으리라. 61년생 승용에 한해하니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73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경사가 생길 수 있다. 85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행운의 숫자: 20, 38

38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이나 놓치지 마라. 50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기 조심은 잊지 마라. 62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으리라. 74년생 승용과 역풍이 오라기락 하리라. 행운의 숫자: 12, 30

39년생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라. 51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63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러우니 수양하고 지내라. 75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승진하는 격이니 이상관계는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22, 34

40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아내의 건강을 살펴라. 64년생 재물이 사라져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76년생 입을 조심하라. 살아놓은 공로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행운의 숫자: 21, 32

41년생 주변의 이심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53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65년생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하리라. 77년생 일 거수 일 투족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8, 35

42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4년생 양중도 색을 하나 잡지는 않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78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14, 28

43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5년생 의외의 인상을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67년생 불연이던 친지로부터 파벌임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79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폭소폭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24, 44

44년생 생활의 무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6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중경의 마음을 가져라. 68년생 불만과 불평은 변인의 잘못이다. 80년생 외사람으로 인해 불만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16, 17

45년생 승용에 한해하는 격이다. 5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69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와 장을 살펴라. 81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예상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01, 43

46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58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마련된다. 70년생 부부간의 인정을 현명하게 넘겨라. 불연이던 극한 상황도 온다. 82년생 급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변경도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02, 31

47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작다. 59년생 절대 주변 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료로써 진행하라. 71년생 신용이 무너지면 절박으로 투항한다. 83년생 좋은 일도 나쁘고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23, 4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문의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절정 키워드

노점상 할머니가 한 청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김밥 할머니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가 열린 청계천 일대에서 서울시 용역업체 직원이 김밥을 팔던 노점상 할머니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고, 진상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비단 여론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폭행을 가한 용역업체 직원 박모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피의자를 입건했다.

한편 폭행을 당한 할머니는 경찰조사에서 “자식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박씨에게 큰 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

‘노점상 할머니 폭행’ 분노의 글 폭주

고 밝혔다.

인기배우 김희선도 오랜만에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탁산그룹의 며느리가 된 김희선이 임신 4주째인 ‘예비엄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희선의 임신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은 2세의 외모가 기대된다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겨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에 대한 관심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소녀시대 태연의 ‘만약에’를 불러 관심을 모았던 김연아는 인기그룹 주얼리의 ‘ET츨’까지 멋지게 소화해내면서 네티즌의 찬사를 받았다. 얼마 전에는 친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두 자매의 미모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신에게선 느낌이 없어’

기분 나쁘게 들지 말라지만 기분 나쁜 건 확실했다.

하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K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답이 서지 않았다. 며칠 뒤, 그날도 남편은 잠자리에 들자마자 K를 툴툴 찢러댔다. 섹스를 하자는 신호다. K는



미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연아(사진 오른쪽)와 3살 터울의 친언니.

제4회 **진검승 도지사배**
전국 아마 최강전 결승

백 △로 끊어 잡아서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흑을 따라 잡는 데 성공했다. 흑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처럼 저만치 앞서가는가 했는데 어느틈엔가 느리다 느리다 거북이가 특유의 끈질김으로 따라붙는데 성공한 것이다. 바둑의 어려운 점이 이런 데 있다. 시종 유리하다가도 한수 빼앗으면 역전되어 되고 만다.

송홍석 7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흑 한점이 도망갈 수는 없으므로 흑 131로 물았는데 다음 133으로 압박하면서 쫓기는 심사를

토끼 따라잡는 거북이 7보(131~173)

白 박문홍 7단 黑 송홍석 7단

옛볼 수 있다. 백 134로 이은 것은 136을 두기 위한 수순이다. 이것으로 구획정리가 모두 끝나고 잔글내기만 남았다. 송홍석 7단은 149까지 선수되는 곳을 모두 행사한 다음 151로 쫓아갔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지키는 것이 좋았다.

백 156으로 불인 수가 강할한 수로 후수여서 166까지 백이 이득을 보고 있다. 견디다 못한 송홍석이 흑 173으로 칼을 빼어 든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민진 지지옥션배 3연승

이민진 5단이 22일 서울 한국기원에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시니어 연승최강전 본선 8국에서 권갑룡 7단을 289수 끝에 10집만으로 이겼다. 대회 3연승이다.

이민진은 초반 중앙 대마의 공격을 잘 방어하면서 주도권을 잡았고, 차분한 끝내기로 승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이민진은 연승 상금 200만원도 덤으로 받게 됐고, 오는 28일 한철군 7단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0분 30초 3회 덤 6집반. 상금은 우승 7천만원이며, 각 대국자에게는 대국료 40만원이 지급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p>굿모닝 잉글리쉬 <1166></p> <p>What's all the commotion about? 왜 이렇게 난리지?</p> <p>A: What's all the commotion about? B: Did you hear about the car exploding? A: No. B: It was bad. Two people were hurt.</p> <p>A: 왜 이렇게 난리지? B: 자동차 폭발사고 있었어? A: 아니. B: 정말 끔찍했어. 두 사람이 다쳤다고.</p> <p>* commotion : 소동, 혼란 * exploding : 폭발</p> <p>* 내가 새로이 시작한 일에 대해 얘기했었니? = Did you hear about my new job? * 그 새로 나온 시디에 대해 소식 들었어? = Did you hear about the new CD?</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1166></p> <p>今日はつきあわせてしまってごめんなさい。 오늘 따라오게 해서 미안합니다</p> <p>A: 今日はつきあわせてしまってごめんなさい。 B: いいよ。デパートっていろいろ物が売られておもしろいから。 A: そう。よかったじゃ、ついでに買(か)い物(もの)の終(お)わった(ら)、食事(しょくじ)につきあってよ。おごるわ。 B: 本當(ほんとう)に嬉(うれ)しい!</p> <p>A: 오늘 따라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B: 괜찮아요. 백화점은 여러 가지 물건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으니까. A: 그래요. 다행이군요. 그럼 가는 길에 쇼핑이 끝나면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한턱 벌게요. B: 정말! 좋아요.(기뻐요)</p> <p>つきあわせる:つきあう의 수동 ついでに:~~~김에 おごる:한턱내다</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143></p> <p>你的笔是不是红的? 당신의 펜은 빨간색입니까?</p> <p>A: 你的笔是不是红的? nǐ de bǐ shì bù shì hóng de 니 데 비 시 부 시 홍 데 B: 是红的。 shì hóng de 시 홍 데 A: 这不是你的笔? zhè shì bù shì nǐ de bǐ 저 시 부 시 니 데 비 B: 是我的。 shì wǒ de 시 워 데 A: 당신의 펜을 빨간색입니까? B: 빨간색입니다. A: 이것은 당신의 펜입니까? B: 네 것입니다. 红 [hóng] 홍은, 붉은 笔 [bǐ] 펜, 연필</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p>	<p>한자 이야기 <183></p> <p>貪天之功(탐천지공) 탐할 탐, 하늘 천, 어조사 지, 공공</p> <p>탐천지공(貪天之功)은 하늘의 공을 탐낸다는 뜻으로, 남의 공로도 자기 것으로 도용(盜用)함을 비유한다.</p> <p>진(晉) 문공(文公)은 아버지 헌공(獻公)에게 쫓겨나서 19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62세가 되어 진(秦)나라의 도움으로 회공(懷公)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문공은 자신이 힘들었을 때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중용(重用)하여 보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曹)나라에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굶주리고 있던 문공에게 먹게 했던 개지추(介之推)는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하였다.</p> <p>개지추는 다른 사람들이 공적을 부풀려서 포상을 받아내는 것을 보고, “문공이 왕위에 오른 것은 실로 하늘이 주군을 임금으로 세운 것인데 몇몇 사람은 자신들의 공로로 여기니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도 오히려 도둑이라 하는데 허물며 하늘의 공로를 탐하여 자신들의 공로로 삼으니 다시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산에 들어가 숨어살다가 죽었다. 문공은 후에 개지추를 사방으로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개지추가 죽은 공로로 개지추의 봉토로 삼고 잘못을 뉘우쳤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僖公24年)</p> <p><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